

지구를 지키는 와인습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영국의 슈퍼마켓 알디(Aldi)는 자체 종이병 와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Frugalpac

‘지구의 날’ 주간이니 고민해본다. 와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환경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답은 ‘예스(Yes)’다.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변하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와인도 포도재배부터 양조, 맛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 거대담론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지키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먼저 와인을 고를 때다.

친환경 마크를 찾아라. 미국 와인이라면 CCOF, EU는 녹색 별을 옆 모양으로 만든 로고, 프랑스라면 AB 또는 ‘Ecocert’, 이탈리아는 ‘Ecogruppo’ 등이다. 합성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

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로만 만들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승인된 재료만 사용하고, 아황산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유기농(Organic) 와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바이오다이نام릭 와인’이라고 써있다면 유기농

농법은 물론 자생적인 생태계로 조성된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를 사용했고, 설탕이나 산 등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 효모 등으로 와인을 양조했다는 의미다.

친환경 인증이 아예 일반화된 지역의 와인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포도밭의 96%가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고, 와인의 90%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와인너리에서 만들어진다.

미국에서는 소노마 카운티가 샤르도네와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시라 등을 키우는 포도밭의 약 99%가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 소노마 카운티 지속가능성 로고가 붙어있다면 사용한 포도 가운데 최소한 85%는 인증받은 포도를 썼다는 얘기가.

가능하다면 더 가벼운 병을 골라 잡자.

와인 한 병의 일반적인 용량은 750ml다. 더 가벼워지려면 와인병의 무게가 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와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숙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였지만 와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범이었다. 와인 소

비자들이 목격한 와인을 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지만 그런 고정관념은 버릴 때다. 지속가능한 와인 라운드테이블(SWR)은 와인병의 경량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병의 평균 무게를 25% 줄이도록 하는 협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예 유리병을 포기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캔와인이나 백인박스(BIB) 포장 와인 말이다. 국내에서도 3리터나 5리터 등 대용량으로 나온 BIB 와인을 구할 수 있다.

대체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심지어 종이로 만든 병에 와인을 넣는 와인너리들도 생기고 있다. 유리병과 비교하면 80%나 무게가 덜 나간다.

와인 쇼핑을 가면서는 전용백을 미리 준비하자. 쇼핑백 하나 줄이자고 하는게 아니다. 깨질세라 와인병을 싸고 또 싸는 에어캡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와인애호가라면 이제 와인 한 잔도 지구에 최대한 친절한 방식으로 마셔보길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를 찾아봤다. 불안해서란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사생활의 천재들’이란 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어디에도 기록될 것 같지 않은 역사 바깥의 시간을 시시하고 진부하게 살지 않으려 애쓰는 이’를 일컬어 ‘사생활의 천재’라고 부른다. ‘사생활의 천재들’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 자신의 기억에서도 결국은 흐릿해질 시간을 살아내느라 뜨거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엮은 책이다.

불안을 다른 내용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저자가 만난 사생활의 천재 중 한 명인 흥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은 불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불안에 떠는지 알려준다. 불안과 공포의 차이는 대상의 존재 유무다. 공포는 대상이 있고, 불안은 없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뭐가 다가올지 알 수 없어 불행하다.

불안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영혼은 무기력과 무감각에 잠식된다. 흥 소장은 “통장에 4만원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멍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며 “손발이 묶인 채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가난이 아니라 무기력이 사람을 무능력하게 한다”고 밝힌다.

흔히들 자유를 잃으면 안정되고, 안정성을 포기하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그는 “오늘날의 불안은 자유와 세트가 아니라 지루함과 세트다”며 “돈 없는 이에게 자유란 끔찍한 것이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엔 자유롭지만, 돈이 없다면 그자유는 끔찍한 것이다”고 이야기



사생활의 천재들
정혜윤 지음/봄아빌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함과 지루함을 불러오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먹이사슬 위에 올라가려고 기를 쓴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한다. 그는 “현재는 미래가 있기에 존재한다. 둘 사이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고 지적한다.

뇌리에 박힌 노래 가사 ‘내가 제일 잘 나가’, 서점가에 부는 ‘자기계발서 열풍’,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인 ‘갯생(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 살기’는 모두 불안의 산물이다. 저자는 “한 아프리카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 따르면 사람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건 외로움이다”며 “정말로 가난한 자는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는 이다. 친구를 언제든지 경쟁자로 여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뺏속 깊이 추운 가난뱅이들이다”고 말한다.

3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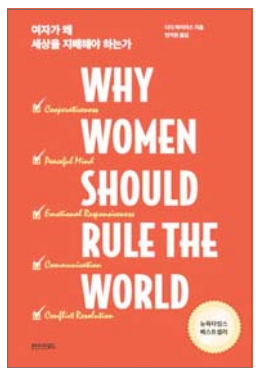
여자가 왜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가

디디 마이어스 지음/민지현 옮김/페이퍼로드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대변인 디디 마이어스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을 당선시킨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백악관에 입성한 저자는 상상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마주하게 된다. 백악관의 여성 보좌진들에게는 직무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디디 마이어스의 직책과 업무는 남성 전임자들

과 달랐다. 그녀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다른 부서의 남직원보다 연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곤혹스러운 일을 빈번하게 겪었다. 저자는 여성이 남성의 의례를 체득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지만, 실제로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그들보다 뛰어나면 비난받게 되는 이중 구속의 문제를 지적한다.

396쪽. 1만9800원.



걱정 중독

롤란드 파울센 지음/배명자 옮김/북복서가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쏟아지는 정보와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인간은 자유로워하는 대신 부담감에 짓눌려 숨 막혀 한다. 한 번의 선택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한 차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내면에 내재돼 있어서다.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은 선택을 내려 반드시 행

복한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는 강박적의 무감이 박혀 있다고 지적한다. 삶은 수많은 우연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고, 부단히 애를 써도 모든 조건과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자는 “삶과 세상은 단순한 방정식에 따라 굴러가지 않고 언제나 불투명한 미래를 전제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 한 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452쪽. 1만9500원.



당신이 속는 이유

대니얼 사이먼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지음/이영래 옮김/김영사

기막힌 속임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책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때때로 그럴싸한 거짓말에 넘어가게 만드는 인간의 4가지 인지 습관(집중·예측·전념·효율)과 사기꾼들이 거짓을 진실로 둔갑할 때 사용하는 4가지 후크(일관

성·친숙함·정밀성·효능)에 주목한다. 가짜 뉴스에서부터 이메일 피싱 사기, 월스트리트의 폰지 사기까지. 다양한 속임수 사례를 통해 인간의 인지적 약점과 매력적으로 보이는 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우리가 당했거나 당할지도 모를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대비하게 해주는 책.

472쪽. 2만4000원.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두 살 손녀 태운 차 ‘공포의 질주’... 또 급발진?
▲ ‘증원 반대’ 의대생 1만3000명 집단 소송 집행정지 모두 각하 /사진 뉴시스

▲ 국민 99% “공무원에게 위법행위 한 민원인, 법적대응 필요”
▲ ‘결혼할 여친 191회 찢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이 낸 성·본 변경 청구 법원서 허가
▲ 의개특위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2025학년도 조속히 확정돼야” /사진 뉴시스